

# 'CHONBUK NU' 아니고 'JEONBUK NU'

### 전북대, 지역명과의 연관성 결여·인지 혼란 해소 위해 영문명 표기 변경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현재 사용 중인 영문명 표기인 'CHONBUK'를 'JEONBUK'으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대에 따르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 원칙에 따라 그간 'CHONBUK NATIONAL UNIVERSITY(CBNU)'를 공식 영문명으로 써왔다.

그러나 전북(JEONBUK)과 전주(JEONJU) 등 지역 지명의 영문 표기와 달라 지역 대표 중심 대학으로서의 연관성이 결여되고 인지 혼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지난 3월부터 5

월까지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 대학 영문 명칭을 'JEONBUK'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교직원 69.7%, 학생 74.9%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7월에 열린 기획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에서도 위원들은 "지역 대표대학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도 지역 영문 표기와 일치하게 변경이 필요하다"며 변경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고, 최근 학무회의를 통해 변경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도메인(chonbuk.ac.kr)은 교수 연구실적 등과 밀접

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영문명칭 변경에 관계없이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영문 명칭 변경이 각종 대학평가 등에 영향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평가기관인 QS나 THE 등과 긴밀히 교류해 'CHONBUK'과 'JEONBUK'이 모두 연동되도록 조치해 대학 순위 하락 등에 있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영문표기 변경에 따른 우수 논문 관련 기관의 혼동으로 논문 연구 실적 누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논문관련 기관인 Clarivate(SCI), Elsevier(Scopus), KRI(KCI)에 대학 영문 표기 변경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대응에도 만

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영문명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교체 비용 및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직원이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별로 교체하고, 그 외 분야는 필요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우리대학의 영문 표기명 변경은 지역의 지명 표기와 일치시켜 전북대가 지역의 대표 거점대학임을 각인시키고, 지역과 세계를 이룰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라며 "변경에 따른 다양한 부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영문명 변경의 목적과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국내외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최근 중국 연변대학에 재직 중인 졸업 동문들을 대상으로 총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 전북대, 연변대학 재직 동문 초청 간담회 성료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중국 연변대학에 재직 중인 졸업 동문들을 대상으로 총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일 열린 중국 연변대학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전북대 김선희 교학부총장과 이동현 국제협력본부장, 추병길 농업생명과학대학 부학장, 국제협력부 직원들과 연변대학 농학원 학장, 연변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전북대 졸업생 38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북대와 연변대학은 지난 1999년 교류 협정을 체결한 뒤 2017년 식품공학 분야 100명 규모의 합작학과를 설립해 전북대 교수진이 전체 교과목의 3분의 1 강의를 담당하는 등 긴밀한 교류를 해오고 있다.

이날 초청 간담회에서는 재직 동문들에게 시간 변화된 전북대의 소식을

전했고, 연변대학에서 우수 인재양성 및 학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모교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모교를 널리 홍보하고 발전 도모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와 상장이 전달됐다.

전북대를 졸업하고 연변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호림 교수(농학과)가 최우수 공로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김현숙 교수(의학과)를 비롯해 류명수 교수(의학과)에게 각각 홍보와 발전 기여상이 수여됐다.

김선희 교학부총장은 "먼 타지에서 모교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대학 간 긴밀한 교류를 위해 애써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바라며, 전북대 동문들의 발전을 위해 모교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EBS 공동 예비 고교생 입시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EBS와 공동으로 예비 고등학교 및 학부모를 위한 입시설명회를 21일 오후 2시부터 전주대학교 J아트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2023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과 예비 고교생을 위한 학습방법을 안내하는 자리로 도내 중학생 및 학부모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EBS 대표강사가 과목별 학습법, EBS 프로그램 활용법, 2023학년도 대입의 이해, 대입 전형별 대응 전략 등이다.

도교육청은 대입전형이 수시로 바뀌는 현실에서 입시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고교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원(대일고) 교사가 예비 고등학교생을 위한 선택 과목별 학습법 및 EBS 활용전략을 안내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고 고교 내신성적과 수능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은경(삼계고) 강사는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의 이해와 수시 및 정시모집 지원 전략 등을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이번 대입 설명회를 통해 예비 고등학생과 학부모가 대입제도 개편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신 대입정보와 양질의 진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교육지원청이 지난 19일~20일까지 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연합놀이 한마당을 열었다.

## '애들아, 숲에서 놀자'

### 김제교육지원청, 유아중심 숲놀이한마당으로 패러다임 전환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주)은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19일~20일까지 공립유치원 유아 450여명을 대상으로 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연합놀이 한마당을 열었다고 밝혔다.

숲 놀이 한마당은 '애들아, 숲에서 놀자!' 주제로 공립유치원 유아의 어우러져 숲 인사를 시작으로 가을 숲 산책, 숲 빗줄놀이(흔들다리, 2인그네, 롱 빗줄타기 등), 숲 명상, 숲 바람 마시기, 눈감고 숲 소리 들어보기 등 오감 만족, 자연 교감 활동으로 구성됐다.

이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중심 교육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김제공립유치원 연합놀이 한마당에는 타 지역과 다른 점이 있다. 종전 대부분의 행사 순서에 있는 의식행사를 모두 생략했다는 것이다.

이는 유아기 특성을 반영해 활동에 중심을 두고 유아에게 활동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해 주자는 의도다. 공원에 도착함과 동시에 숲 인사를 시작으로 숲 활동이 실시됐다. 땅을 바라보며 '안녕! 잔디야~ 지렁이야~' 하늘을 우러러보며 '안녕! 바람아~ 나무야~' 숲과 인사를 하는 유아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행복함이 진하게 묻어났다.

유아들을 향한 어른들의 배려 속

에 자율성, 창의성, 배려, 신뢰가 싹트는 시간이었다.

지난 19일 오전에는 김제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원 잔디 광장에 단테로 나들이를 나와 아이들의 활동을 지켜보았다.

어르신들은 해맑은 모습으로 놀이하는 유아들을 바라보며 "고맙다~ 너희들을 보게 돼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이 자리에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며 김제 지역의 유아들에게 희망과 지지를 보내주기도 했다. 김제교육청 교육공동체가 만들어 낸 패러다임 전환의 일화이다.

/장은성 기자

## "쉽고 재미있는 영상물로 배워요"

### 전북대 의대, 이라닝 컨소시엄 학습자료 공모 '최우수' 쾌거

전북대학교 의대 영상동아리인 '필미'의 박승·고영준·강민성 학생과 이들을 지도한 정연준 교수가 최근 의대 이라닝 컨소시엄이 주최한 2019 학습자료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의대 학생들이 직접 의학 분야 학습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학습 참여 및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된 것.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를 거쳐 총 18개 작품이 출품됐다.

의대 영상동아리 '필미' 학생들은 '수술 전 손씻기 및 가운입기'라는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임상실습 중 수술방에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표현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승 학생은 "우리가 만든 영상을 통해 수술실에서 수술참관 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과대학 이라닝 컨소시엄은 전국 33개 의과대학이 참여해 2007년 설립했으며 의대생 교육에 필요한 이라닝 매체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